

## 카리브의 탈식민화와 아이티 혁명의 기억: 에두아르 글리상의 희곡, 『무슈 투생(1961)』을 중심으로\*

하 영 준

### I. 머리말

이 연구는 에두아르 글리상(Édouard Glissant)의 《무슈 투생(Monsieur Toussaint, 1961)》을 카리브의 탈식민화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다.<sup>1)</sup> 《무슈 투생》은 아이티 혁명의 지도자였던 투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를 다룬 역사극이다. 아이티 혁명(1791-1804)은 흑인 노예들이 자기 힘으로 노예제를 폐지하고 미국 독립에 이어 신대륙에서 두 번째로 식민지 독립을 성취한 혁명이었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정당화했던 서구 중심적 담론은 오랫동안 아이티 혁명을 역사의 영역 밖으로 배제하려 했지만, 그 기억은 망각 되지 않았다.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는 역사학과 같은 학문 차원의 체계적 담론을 생산하기는 힘들었지만, 아이티 혁명의 저항 서사를 시·노래·회화·소설·연극 등 다양한 문화적 형태에서 창출하고 공유했다. 글리상의 연극도 이러한 노력의 한 부분을 구성하며, 1960년대 아프리카와 카리브 식민지의 독립을 배경으로 아이티 혁명의 역사를 새롭게 부각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 연구는 《무슈 투생》이 아이티 혁명의 재현에서 보여주는 인식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이 작품이 아이티 혁명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0S1A5B5A17087895).

1) 글리상의 연극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로 조금 다른 세 가지 판본으로 출간되었다. Édouard Glissant, *Monsieur Toussaint, Theatre* (Paris: Editions du Seuil, 1961); Glissant Édouard (1978),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aris: Gallimard, 1986); Édouard Glissant (2003), J. Michael Dash, Édouard Glissant, trans., *Monsieur Toussaint, a Play*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05).

의 재현과 흑인 지식사 연구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드러내려 한다.

## II.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 쟁점

이 연구의 필요성은 몇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다. 프랑스 소설가·시인이자 탈식민주의 사상가인 글리상은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와 프란츠 파농(Frantz Fanon) 등과 같은 프랑스로 마르티니크섬 출신의 흑인 지식인이다. 1950년부터 작품 활동과 정치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1990년대 이후 학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트랜스내셔널 연구’와 ‘글로벌 연구’가 성장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다. 해외 연구의 규모와 비교하여 작지만, 국내에도 중요한 글리상 연구가 존재한다.<sup>2)</sup> 세제르의 ‘네그리튀드(négritude)’와 서구적 근대성이 공유하는 본질주의적 문화 개념을 거부하고 카리브 사회의 고유성과 혼종성을 옹호하는 글리상의 주요 개념, 예를 들어 ‘앙티야니테(antillanité)’, ‘크레올리테(Crolité)’, ‘관계의 시학(poétique de la relation)’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소설 《레자르드 강(La Lézarde, 1958)》 등의 개별 작품을 분석하기도 했다. 이들 국내 연구는 세제르의 ‘네그리튀드 운동’이나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반식민주의 혁명론과는 구별되는 글리상의 사상적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글리상의 초기 작품이자 유일한 희곡 작품인 《무슈 투쟁》을 다루지는 않았다. 해외 연구도 글리상의 후기 사상을 맹아적으로 담고 있는 전기 작품으로 인식하면서 최근에는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글리상의 연극이 가진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일차적 목적을 갖는다.

글리상 연구의 중요 쟁점 하나는 글리상의 후기 사상에 대한 평가와 관련

---

2) 심재중, 「'경이적 리얼리즘'에서 '관계의 시학'까지 - 프랑스어권 카리브의 답론」, 『라틴아메리카연구』, 18권 1호(2005); 심재중, 「에두아르 글리상: 카리브 탈식민의 과제와 그 너머 - 『레자르드 강』을 중심으로」, 『불어문화권연구』, 20권(2010); 진중화, 「에두아르 글리상의 시와 평론에 나타나는 앙티야니테를 중심으로 한 서인도해 정체성 추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2집(2010); 진중화, 「에두아르 글리상의 역사 의식」,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9집(2012); 진중화, 「에두아르 글리상의 관계 정체성」, 『한국프랑스학논집』, 95집(2016); 박주식, 「크레올화의 시학: 에두아르 글리상과 카리브 군도의 탈식민 문화 정체성」, 『비평과 이론』, 21권 3호(2016).

된다. 글리상 연구자들은 글리상 사상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후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반대로 후기를 새로운 지구화 시대에 걸맞은 정치적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옹호하는 견해로 크게 나뉜다. 저명한 글리상 연구자, 피터 홀워드(Peter Hallward)는 두 명의 글리상이 있다고 주장한다.<sup>3)</sup>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전기의 글리상과 그리고 정치 참여에서 물러나 문화에만 배타적 관심을 둔 탈정치화된 후기의 글리상이다. 홀워드는 전기의 첫 두 소설 『레자르 강(1958)』과 『4세기(Le quatrième siècle, 1964)』를 글리상이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가장 낙관적인 국면의 사례로서 설명하고 전기의 사상은 세제르 및 파농의 급진적 반식민주의 운동과 궤를 같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기 저작, 특히 『관계의 시학(Poétique de la Relation, 1990)』은 강도 높게 비판한다.<sup>4)</sup> 전 지구화를 배경으로 민족의 소멸을 찬양하면서 독립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전기의 민족주의 정치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홀워드가 보기에, 이 같은 글리상의 전환은 ‘68년 운동’ 이후 신좌파가 정치와 경제를 포기하고 문화로 관심을 전환했던 부정적 사례의 하나였다. 홀워드는 후기 글리상의 탈-민족주의적 문화 정치가 평등과 통합의 정치를 포기한 보수주의적 한계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크리스 본지(Chris Bongie)도 글리상의 후기 사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sup>5)</sup> 후기 글리상이 해방의 정치를 포기하고 ‘관계의 시학’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유토피아적 주장으로 이를 대체했다는 것이다.

반면 셀리아 브리톤(Celia Britton)은 이러한 비판을 반박한다.<sup>6)</sup> 후기 글리상은 정치 참여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 지구적 시대에 적합한 정치의 새로운 방식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다. 찰스 포르스딕(Charles Forsdick)도 브리톤과 같은 견해이다.<sup>7)</sup> 글리상의 후기 저작이 프랑스와

3) Peter Hallward, *Absolutely Postcolonial: Writing between the Singular and the Specific*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1), p. 119.

4) Édouard Glissant, Betsy Wing trans., *Poetics of Relatio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7).

5) Chris Bongie, *Friends and Enemies: The Scribal Politics of Post/Colonial Literature*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08), p. 329.

6) Celia M. Britton, "Globalization and Political Action in the Work of Édouard Glissant", *Small Axe*, 13-3(2009), pp. 1-11.

7) Charles Forsdick, "Late Glissant: History, 'World Literature,' and the

프랑스어권 지역을 탈식민화하려는 그의 지속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샘 콤베스(Sam Coombes)도 글리상이 직접 참여했던 급진적 정치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후기의 핵심 개념인 ‘관계의 시학’이 동시대 지구화의 부정적 양상을 비판하는 ‘대항 지구화’ 담론이라고 주장한다.<sup>8)</sup>

이 같은 논쟁에서 《무슈 투쟁》은 글리상의 후기 사상을 맹아적으로 담고 있는 전기 작품으로 평가되면서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후기의 ‘관계(la Relation)’ 개념이 아이티 혁명을 연극으로 재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케네디 숄츠(Kennedy Miller Schultz)는 자기 박사 논문에서 연극을 글리상의 ‘관계’ 개념이 구현된 드라마라고 평가한다.<sup>9)</sup> 글리상이 아이티 혁명과 투쟁에 대한 다양하고 심지어 모순되기까지 한 주장과 평가를 관계 개념을 통해 하나로 엮어내면서 서구의 지배 담론에 도전하고 새로운 카리브 정체성 형성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포르스딕은 마르티니크 독립과 프랑스령 카리브 연방을 꿈꾸었던 전기 글리상의 정치적 구상에는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의 문체까지를 고려하는 후기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으며, 같은 시기 쓴 《무슈 투쟁》에도 관계 개념의 형태로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sup>10)</sup> 빅터 피게로아(Victor Figueroa)도 글리상의 ‘후기 스타일’이 그의 유일한 연극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한다.<sup>11)</sup> 한편 필립 카이사리(Philip James Kaisary)은 이들 연구자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그 평가에서 매우 부정적이다.<sup>12)</sup> 비판주의적 정치 전망과 보수주의적 문화 정치로 후기 글리상이 후퇴할 것을

---

Persistence of the Political”, *Small Axe*, 14-3(2010), p. 123.

- 8) Sam Coombes. *Édouard Glissant: A Poetics of Resistance*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8), pp. 125-190.
- 9) Kennedy Miller Schultz, “Haitian H/(h)istories: Representations of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Plays of Glissant, Cessaire and Dadi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0, pp. 110-111.
- 10) Charles Forsdick. “‘Focal Point of the Caribbean’: Haiti in the Work of Édouard Glissant”, *Callaloo*, 36-4(2013), p. 956.
- 11) Victor Figueroa, *Prophetic Visions of the Past: Pan-Caribbean Representations of the Haitian Revolution*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15), p. 188.
- 12) Philip Kaisary,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Literary Imagination: Radical Horizons, Conservative Constraints*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14), pp. 109-111.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전기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들 연구는 글리상 사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연극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무슈 투생》이 글리상의 후기 사상을 맹아적으로 담고 있는 전기 작품이라면, 글리상의 전체 사상을 전기와 후기로 대립적 방식에서 구분하고 후기 사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홀워드와 본지의 분석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게로아의 주장처럼, 글리상의 전기와 후기를 절대적 단절이라기보다는 강조점의 변화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관점은 글리상의 전체 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중요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글리상의 연극을 지나치게 문학 이론의 관점에서 다뤄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는 글리상의 연극을 연구할 두 번째 필요성을 제시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후기 글리상의 관계 개념을 지구화 시대에 타당한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하는 연구자들은 연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관계 개념의 이론적 타당성에만 초점을 두고 탈역사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연극 자체가 가졌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1960년대 카리브와 아프리카의 식민지 독립 이후 상황과 관련된 작품의 역사성이 무시된 것이다. 글리상의 연극은 아이티 혁명의 재현과 흑인 급진주의 지성사에서 일어난 ‘탈식민주의로의 인식론적 전환’을 어느 것보다 앞서 보여준 작품이었다.

글리상 연극의 이 같은 선구적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극에 대한 기존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지배적 설명은 글리상이 아이티 혁명을 이해하는 데 자신의 앞 세대인 제임스(C. L. R. James)와 세제르의 견해를 따랐다는 것이다. 글리상 자신이 희곡의 1961년 판 서문에서 이 점을 인정했다. 제임스가 1938년 쓴 역사서, 『블랙 자코뱅』과 세제르가 1960년 쓴 역사 에세이, 『투생 루베르튀르』가 자기 견해에 주요 근거라고 했기 때문이다.<sup>13)</sup> 따라서 연구자들은 글리상이 자기 이론과 개념으로 제임스와 세제르의 견해를 어떻게 변주했는가에 관심을 두고

13) C. L. R. James, *The Black Jacobins: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San Domingo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1989); Césaire Aimé, *Toussaint Louverture: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e problème colonial* (Paris: Présence Africaine, 1981).

분석해왔다. 예를 들어 피게로아는 제임스와 세제르의 저작을 연극으로 각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썼다.<sup>14)</sup> 컬티스(Small, Jr. Curtis)도 아이티 혁명을 연극으로 재현하면서 투생의 정치적 중요성과 그가 겪은 정치적 위기에 대한 제임스의 설명을 글리상이 따랐다고 주장했다.<sup>15)</sup> 글릭(Jeremy Matthew Glick)도 자신의 연구에서 글리상의 연극은 지도자와 대중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제임스의 문제의식을 그 논리적 극단으로 가져간 것으로 “글리상의 투생은 제임스의 투생을 완성했다.”고 표현했다.<sup>16)</sup>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글리상의 연극이 이들의 저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서사 방식’과 ‘문제-공간(problem-space)’에 기초한다는 점을 보지 못한 것이다.<sup>17)</sup>

제임스의 역사서, 『블랙 자코뱅』과 세제르의 역사 에세이, 『투생 루베르튀르』는 1930년대 반식민주의 저항 담론을 지배했던 서사 방식인 ‘혁명적 로망스’에 기초하고 있었다. 카리브의 저명한 탈식민주의 이론가 데이비드 스콧(David Scott)에 따르면, 혁명적 로망스는 반식민주의 운동의 문제 공간을 반영하는 목적론적이고 역사 필연적인 승리주의 서사이다. ‘억압과 저항, 갈등과 고난, 최종 승리’의 점층 구조로 과거-현재-미래를 엮는다. 이러한 서사 구조에서 노예제와 식민주의는 특정한 종류의 개념적·이데올로기적 대상으로 구성된다. 흑인 노예와 식민지 종속민을 폭력과 배제를 통해서 비인간화하고 사물화하는 사회 구조로 그린다. 인간 주체성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권력인 것이다. 반식민주의 운동은 이 같은 노예제와 식민지 체제를 총체적으로 변혁할 새로운 인간형과 사회 체제의 창출을 열망한다. 이러한 정치 담론적 조건, 즉 반식민주의적 문제 공간

14) Figueroa, *Prophetic Visions of the Past*, p. 169.

15) Curtis Small, Jr., “‘Cet Homme est une Nation’: The Leader and the Collectivity in Literary Representations of the Haitian Revolution (Hugo, Lamartine, Glissant, Césaire)”,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French, New York University, 2001, p. 5.

16) Jeremy Matthew Glick, *The Black Radical Tragic: Performance, Aesthetic, and the Unfinished Haitian Revolu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 pp. 85-125.

17) 데이비드 스콧(David Scott)에 따르면, 문제-공간이란 질문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획하면서 특정 작품을 구조화하는 ‘정치 담론적 조건들’이다. 특정한 문제-공간은 역사적으로 구성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직하는 특정한 서사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David Scott, *Conscripts of Modernity: The Tragedy of Colonial Enlightenment*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Books, 2004), pp. 3-7.

은 개별 혁명가나 사상가가 던질 수 있는 질문(과 그 답변)의 범위를 인식론적으로 결정했다. 스콧에 따르면, 제임스의 1938년 역사서, 『블랙 자코뱅』, 세제르의 『식민주의에 대한 담론(Discours sur le colonialisme, 1955)』, 파농의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Les Damnés de la Terre, 1961)』 등은 혁명적 로망스에 기초한 반식민주의 해방 서사의 대표적 사례이다.<sup>18)</sup> 그러나 글리상의 연극은 ‘혁명적 로망스’가 아니라 ‘비극적 서사’에 기초하고 있었다.

글리상의 《무슈 투쟁》은 카리브와 아프리카에서 탈식민화의 위기가 아직 본격화되기 전에 아이티 혁명의 기억을 통해서 이를 예견한 작품이었다는 점에서 선구적일 뿐 아니라 다른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들에 앞서서 인식의 전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선구적이었다. 1960년대 글리상을 포함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데릭 월컷(Derek Walcott), 세제르, 제임스 같은 카리브 흑인 지식인들은 아이티 혁명의 기억을 연극으로 새롭게 재현하려고 시도했다. 아이티의 역사는 동시대 카리브와 아프리카 나라가 겪던 탈식민화의 위기를 150년 전에 보여주었고 당시 연극 공연은 대중에게 식민지 독립 이후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현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제임스는 자신의 1936년 연극 《투쟁 루베르튀르》를 1967년 《블랙 자코뱅》으로 다시 썼다.<sup>19)</sup> 문제의식·서사 방식·막과 장의 구성 등에서 완전히 다른 작품이었다. 세제르도 1963년 연극, 《크리스토프 왕의 비극》을 썼는데, 1960년에 쓴 자신의 역사 에세이 『투쟁 루베르튀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의식에 기초해 있었다.<sup>20)</sup> 이들 모두는 아이티 혁명을 비극적 서사로 재현하면서 던지는 질문과 그 대답의 틀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sup>21)</sup>

18) Scott, *Conscripts of Modernity*, pp. 6, 30.

19) C. L. R. James, *The Black Jacobins* [manuscript] no. 228, box 9, The West Indiana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St. Augustine Trinidad and Tobago.

20) Aimé Césaire,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Paris: Présence Africaine, 1963).

21) 제임스와 세제르 연극의 탈식민주의로의 인식 전환에 대해서는 하영준, 「아이티 혁명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억과 흑인 급진 정치 - C. L. R. 제임스의 연극들에 대한 비교 연구 -」, 『서양사론』, 124호(2015); 하영준, 「1960년대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블랙인터내셔널리즘 - 에메 세제르와 C. L. R. 제임스의 비교 연구 -」, 『호모 미그란스』, 20호(2019); Scott, *Conscripts of Modernity*, pp. 1-22; John Patrick Walsh, *Free*

스콧에 따르면, 역사의 불연속성과 권력의 생산성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담았던 비극적 서사는 1960년대 아프리카와 카리브에서 민족해방 및 사회해방의 기획이 실패하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가능성과 그 실효성이 소진된 탈식민주의의 ‘문제-공간’을 반영했다. 문제 공간의 변형으로 질문과 대답의 범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노예제와 식민주의는 흑인 노예의 인간성과 주체성을 부정하는 억압적 권력으로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다. 해방과 독립 이후에도 식민지 국민의 삶과 전망을 조건 짓고 (서구적) 근대성을 열망하는 주체로 이들을 만드는 생산적 권력으로 그려진다. 스콧은 제임스가 1938년에 쓴 『블랙 자코뱅』을 1963년 수정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스콧의 분석은 제임스의 역사서에만 배타적 관심을 가지고 그의 연극을 고려하지 않았고 혁명에 대한 비관론적 전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아이티 혁명의 재현과 흑인 급진주의 지성사를 연구하는 방법 차원에서 큰 도움을 준다. 제임스와 세제르가 글리상의 견해에 영향을 주었다는 기존의 지배적 설명과는 반대로 《무슈 투생》이 1960년대 탈식민화의 위기를 예견한 선구적 작품으로서 이들의 탈식민주의적 인식 전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글리상의 연극이 아이티 혁명의 재현에서 어떤 인식 전환을 보여주는지 다른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들의 작품과 비교 검토하면서 그 역사적 의미를 드러낼 것이다.

### Ⅲ. 1960년대 탈식민화와 《무슈 투생》

1961년 처음 출간된 《무슈 투생》은 글리상의 정치 활동에서 중요한 분수령이었던 시기와 연관된다. 글리상의 정치 활동은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이던 세제르의 영향 아래 시작되었다. 세제르는 1944년 정치가로 변모하여 프랑스 공산당의 후보로 마르티니크 주도, ‘포르-드-프랑스(Fort-de-France)’의 시장으로 선출되었고, 이후 마르티니크의 국회의원

---

*and French in the Caribbean: Toussaint Louverture, Aimé Césaire, and Narratives of Loyal Opposi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13), p. 104; Paul Breslin, Rachel Ney, “Introduction: The Challenge of Aimé Césaire’s *The Tragedy of King Christophe*”, Césaire, *The Tragedy of King Christophe*, pp. xlix-1. 등을 참조.



으로도 당선되어 프랑스 국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세제르의 선거운동에 참여했을 때 글리상이 느꼈던 정치적 흥분과 기대는 1958년 출간된 그의 소설 『레자르드 강』에서 잘 나타난다. 환희에 찬 햇불 행렬이 “억압당한 자들의 승리”인 “대표자”(세제르)의 승리를 축하했다. 그러나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염세주의는 마르티니크의 탈식민화에 대한 글리상의 비판적 전망을 반영하고 있었다.<sup>22)</sup>

세제르는 1946년 마르티니크를 프랑스의 ‘해외 도’로 통합하는 법령을 추진했다.<sup>23)</sup> 마르티니크·과달루페·기아나를 비롯한 프랑스의 식민지 일부를 본국의 도로 편입하고, 이 지역의 식민지인들에게 프랑스 국민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마르티니크의 민중은 프랑스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세제르는 이들의 동화 요구가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등을 위한 구호라고 인식했다.<sup>24)</sup> 따라서 세제르의 통합 정책은 식민지 종속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마르티니크 민중의 요구를 반영한 탈식민화의 전략이었다. ‘베케(Békés)’라고 불리는 백인 식민지 정착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정치적 민주화를 실현하고 사회적 평등을 획득하려 했다. 1946년 마르티니크는 프랑스의 식민지 지위에서 벗어나 해외 도의 위상을 얻었고 마르티니크 민중은 형식적으로 프랑스 본토 시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글리상은 세제르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세제르가 네그리튀드 운동의 주창자였기에, 프랑스와의 통합을 추진했던 그의 정치적 변신은 놀라운 것이었다. 글리상은 해외 도 통합법을 반대했다. 마르티니크 민중이 자신의 집단 기억과 지역 정체성을 부인하게 만드는 동화법이 될 것이라 예견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하여 통합 이후 프랑스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아이티와 같은 ‘제3세계’ 카리브 이웃의 후진성을 부각하면서 ‘제1세계’ 프랑스로의 문화적 동화를 권장했다. 마르티니크 민중은 ‘근대적 프랑스인’이 되려고 열망했고 마르티니크의 고유문화는 현실의 삶과는 유리된 채 보존과 관람의 대상으로 전락했

22) Nick Nesbitt, “Early Glissant: Destitution of the Political Antillean Ultra-Leftism”, *Callaloo*, 36-4(2013), p. 937.

23) 현재 마르티니크는 프랑스의 해외 레지옹(région)이자 데팡르트망(département)이다.

24) 오승현, 「에메 세제르의 네그리튀드와 탈식민주의」, 『서양사 연구』, 62집(2020), 28쪽.

다.<sup>25)</sup> 한편, 프랑스와의 정치적 통합은 세제르가 원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환멸의 시기가 그 뒤를 따랐다. 사회경제적 평등은 실현되지 못했으며 1946년~1959년 시기에 경제 위기와 실업 증가로 파업과 데모가 증가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마르티니크에서 일어난 대중 시위를 직접적 계기로 글리상은 과들루프 출신 법률가이자 시인이었던 폴 니제르(Paul Niger, 본명은 Albert Béville) 등과 함께 1959년 프랑스령 카리브 식민지의 독립을 위한 투쟁 단체인 ‘독립을 위한 앤틸리스-기아나 전선(Front Antillo-Guyanais pour l’Indépendance)’을 창설했다.<sup>26)</sup> 글리상은 인구 40만이 안 되는 작은 섬 마르티니크가 독자 생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다른 카리브 섬들과 연방을 결성한다면 프랑스로부터의 독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자메이카와 트리니다드 등 영국령 카리브의 식민지는 독립의 정치적·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국령 카리브 연방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글리상도 마르티니크·과들루프·기아나 등을 포함하는 프랑스령 카리브 연방의 결성을 추진했다. 1959년 일어난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도 이들에게 중요한 자극제였다. 1960년 글리상은 ‘알제리민족해방전선’과 싸우기를 거부하는 프랑스 징집병들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121 선언’에도 서명했다. 알제리 독립전쟁의 마지막 해인 1961년 4월에 ‘앤틸리스-기아나 전선’의 첫 총회가 개최되었고 글리상은 개회 의장을 맡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드골 정부는 ‘앤틸리스-기아나 전선’을 강제 해산시켰고 글리상은 과들루

---

25) Richard Price, Sally Price, "Shadowboxing in the Mangrove: The Politics of Identity in Postcolonial Martinique", Belinda J. Edmondson, ed., *Caribbean Romances: The Politics of Regional Representation* (Charlottesville and London: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9), pp. 136-138.

26) Andrew M. Daily, "Race, Citizenship, and Antillean Student Activism in Postwar France, 1946-1968", *French History Studies*, 37-2(2014), p. 349; Forsdick, "Focal Point of the Caribbean", pp. 955-957; Nesbitt, "Early Glissant", p. 934. 본문의 단체명은 글리상 자신의 인터뷰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단체명을 "Front Antillo-Guyanais pour l’Autonomie."이라고 쓰기도 한다. 피케로이는 이 같은 단체명의 부정확성은 독립 국가를 추구하는 민족주의 정치에 대한 전기 글리상의 모호한 태도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Figueroa, *Prophetic Visions of the Past*, p. 266.

프에서 체포되어 프랑스 본토를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다. 글리상과 함께 프랑스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던 폴 니제르는 1962년 자신의 정치적 동료들과 카리브행 비행기에 몰래 탑승했으나 추락 사고로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글리상도 직접적인 정치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게 되었다. 1965년 프랑스 정부의 허용으로 마르티니크로 돌아온 후 글리상은 프랑스의 동화주의에 저항하는 교육과 문화 활동에 집중했다. 카리브 사회를 연구하는 ‘마르티니크 연구소(Institut Martiniquais d'Etudes)’를 설립하면서 저널 『아코마(Acoma)』를 창간했고, 콘퍼런스 개최와 여름학교 개설 같은 지역 학술 활동을 전개했다.<sup>27)</sup> 글리상의 카리브 연방과 마르티니크의 문화적 자율성 추구는 1981년 『엔틸리스 담론(Le Discours Antillais)』의 출간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무슈 투생》은 이 같은 글리상의 정치적 활동을 배경으로 출현했다. 마르티니크가 해외 도로서 겪었던 사회적 위기와 자신의 활동으로 겪었던 정치 탄압은 글리상의 인식에서 중요한 전환을 불러왔다. 세제르도 프랑스와의 통합이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마르티니크 진보당’을 결성하고 자치와 문화적 자율권을 옹호하는 연방제를 주장하게 되었다.<sup>28)</sup> 그러나 이 같은 세제르의 연방제는 해외도 통합 정책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프랑스 국가라는 틀 안에 남기를 선택하고 있기에 글리상의 연방제 구상과는 달랐다. 세제르의 연방제 구상은 1960년에 출판된 자신의 투생 연구, 『투생 루베르튀르』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래서 한 연구자는 《무슈 투생》에서 투생과 데살린의 갈등은 세제르와 글리상의 갈등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sup>29)</sup> 프랑스에 남기를 선택한 ‘투생-세제르에 맞서’ 아이티의 독립을 선언한 데살린과 해방 노예들을 글리상이 옹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글리상의 연극은 훨씬 더 근본적인 성찰을 담고 있다. (아이티-마르티니크) 독립의 찬반으로 접근하는 것은 세제르뿐만 아니라 글리상의 사상을 반식민주의적 해석 틀 안에 가둘 위험이 있다. 세제르의 통합 정책이 프랑스 식민주의와의 협조가 아니었듯 글리상의 독립 추구도 반식민

27) Michael Dash, *Edouard Glissa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95), pp. 14, 93.

28) 오승현, 「에메 세제르의 네그리튀드와 탈식민주의」, 21~27쪽.

29) Figueron, *Prophetic Visions of the Past*, p. 170.

주의의 민족국가 건설 전략으로 단순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리상은 투쟁-세계주의의 선택을 정치적 실수나 배신으로 손쉽게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 대해서 고민했다. 그래서 1960년대 ‘탈-식민적, 신-식민적 상황’이 아직 본격화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글리상은 아이티 혁명의 연극적 재현에서 카리브와 아프리카 나라들이 독립 이후 겪게 될 문제를 다루는 서사 방식과 문제 공간의 탈식민주의적 전환을 보여주게 된다.

#### IV. 《무슈 투쟁》의 문헌학적 조사와 핵심 내용

글리상의 《무슈 투쟁》은 세 가지 다른 판본이 존재한다. 첫 번째 판본은 1959년에 라디오 방송을 목적으로 만들었고 1961년 출판되었다. 이 판본은 1971년 ‘프랑스-문화(France-Culture, 프랑스방송국)’의 라디오 방송극으로 공연되었다. 글리상은 1977년에 연극 무대를 위해서 두 번째 판본을 다시 썼고 1977년 파리에서 처음으로 공연되었다. 1978년에 자기 저널 『아코마』에 실었다. 1986년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정식 출간되고, 1988년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한 글리상의 글 모음집에 포함되었다. 두 번째 판본은 1981년에 영문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글리상은 2003년 투쟁 루베르튀르의 사망 2백 주년을 기념하여 세 번째, 마지막 판본을 썼고, 그렉 제르맹(Greg Germain)이 연출 감독을 맡아 투쟁이 옥사한 ‘주 요새(the Château de Joux)’에서 기념공연을 했다. 마지막 세 번째 판본은 프랑스어로 출간되지 않았고 글리상이 마이클 대쉬(Michael Dash)와 함께 번역한 두 번째 영문판으로만 2005년 출간되었다.

《무슈 투쟁》의 1961년, 1978년, 2003년 세 판본은 구성이 모두 같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판본 사이에 상대적으로 큰 수정이 있었다. 첫 번째 판본은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 즉 역사적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두 번째 판본보다 좀 더 길다. 첫 번째 판본은 처음부터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무슈 투쟁》 같은 실험적인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식민지 카리브 사회에서는 없었고, 글리상 본인이 정치 활동으로 프랑스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연극의 공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sup>30)</sup> 그러나 두 번째 판본은 상황 변화에 따라

30) Sarah J. Townsend, “The Spectral Stage of Édouard Glissant’s

공연할 수 있게 축약되고 수정되었다.

두 번째 판본에서 투생이 프랑스 군대에 체포된 이후 데살린이 처형한 사르 벨레르(Charles Bélair) 장군과 그의 임신한 아내 사나이트(Sanite)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다.<sup>31)</sup> 또한 유럽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삭제되었다. 영국군 총사령관 미틀랜드(Maitland)가 투생과 협상하는 장면이 사라졌고, 나폴레옹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침략했다는 언급도 빠졌다.<sup>32)</sup> 투생이나 다른 등장인물의 대사가 줄었고,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도 많이 축소되었다. 따라서 아이티 혁명의 역사를 처음 접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관객은 극의 전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판본은 첫 번째 판본에서는 없던 크레올어가 일부 사용되었다. 글리상이 카리브의 크레올 문화에 갖게 된 관심을 반영한다.

세 번째 판본인 글리상과 데쉬의 영어판은 두 번째 판본과 거의 같지만, 몇몇 대사가 빠졌거나 반대로 추가된 부분이 있다. 1961년과 1978년의 두 프랑스어 판본 그리고 글리상과 데쉬가 영어로 번역 출판한 2003년 판본까지의 수정 과정은 글리상의 인식에 어떤 변화를 반영하며 그 자체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세 판본이 보여주는 차이가 아니라 공유하는 문제의식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1978년 프랑스어 판본과 2005년 영어 판본을 기본으로 하며, 1961년 판본을 사용하게 될 때는 따로 언급할 것이다.

《무슈 투생》은 총 4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1막 제목은 ‘신들(Les Dieux)’이고,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막 제목은 ‘죽은 자들(Les Morts)’이며, 전체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막 제목은 ‘민중(Le Peuple)’이고,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4막 제목은 ‘영웅들(Les Heros)’이며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극의 주된 시기는 투생이 프랑스에 끌려와 감금된 때이고, 중심 무대는 쥐라산맥에 자리 잡은 주요 새의 감옥이다. 죽은 자들이 환영의 형태로 투생의 감방을 찾아온다. 이들은 투생의 눈에만 보이며 그에게 아이티 혁명과 관련된 자기 과거 정치 행적을 반추하게 하고 그 역사적 공과를 따진다.

*Monsieur Tussaint*, *Modern Dram*, 61-4(2018), p. 503.

31) Glissant, *Monsieur Toussaint, Theatre*, pp. 197-201.

32) Townsend, “The Spectral Stage”, p. 514.

죽은 자들에는 식민지 농장주들을 독살의 두려움에 떨게 하다 결국 체포되어 화형당한 탈주 노예의 지도자이자 주술사 마칸달(Macandal), 아이티 혁명으로 발전하게 될 첫 번째 노예 반란의 종교의식을 부아 카이망(Bois Caïman)에서 주재한 부두교 주술사 마몽 디오(Maman Dio, 가상의 인물), 탈주 노예이자 반란 노예 지도자로서 프랑스 원정대와 싸웠으나 죽어 개의 먹이가 된 마카이아(Macaïa), 투생의 조카이자 혁명을 함께 이끌었지만 반란 혐의로 투생에게 처형된 모이즈(Moyse) 장군, 과달루페에서 노예제를 복원하려는 프랑스 원정대에 맞서 싸우다 폭사한 마르티니크 출신의 델그레스(Delgrès) 장군, 백인 농장주로서 투생의 이전 주인이었던 바이온-리베르타트(Bayon-Libertat) 등이 있다.

마칸달·마몽 디오·마카이아 등은 해방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흑인 노예의 반항 정신을 상징한다. 이들은 프랑스와의 유대를 유지하고 대농장 체제를 보전하면서 국민에게 법과 질서를 폭력적으로 강제했던 투생의 정책에 강한 배신감을 느낀다. 살아 있는 자들은 ‘주 요새’의 군인 간수들이다. 죽어가는 투생을 동정하는 이탈리아 농민 출신의 평범한 병사 마누엘(Manuel), 투생을 괴롭히고 자기 출세에 이용하려 했던 주 요새의 대장 아모트(Amyot)과 부대장 랑글래스(Langles), 그리고 투생이 보물을 숨겼다고 의심하고 이를 빼앗으려는 나폴레옹의 특사(장군) 카파렐리(Cafarelli) 등이 있다. 그리고 아이티 혁명을 회상하는 과정에서는 투생 부인과 데살린·크리스토프 같은 투생과 함께 아이티 혁명을 이끈 장군들, 투생의 백인 비서였지만 배신한 그랑빌(Granville)과 투생을 몰락시킬 음모를 꾸미는 농장주들 등도 등장한다.

연극은 투생의 회상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오가기 때문에, 연대기적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그러나 투생의 정치 행적에 대한 반추는 아이티 혁명의 전개 과정에 따라 구성된다. 첫 1막 ‘신들’은 노예 반란이 시작된 이후 투생이 프랑스 정부의 특사와 반란 노예들에게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1890년대 시기를 되돌아본다. 1막의 마지막에서 투생은 (노예제 폐지를 거부한) 스페인을 떠나 프랑스 정부 편으로 돌아서고, 프랑스 정부의 대표, 라보(Laveaux)는 그를 생도밍그 프랑스 군대의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2막 ‘죽은 자들’은 투생이 혼혈 자유인을 대변하며 생도밍그 남부를 통제했던 리고(Rigaud)에 맞서 식민지의 전체 패권을 두고 벌인 전쟁을 다룬다. 3막 ‘민중’은 투생이 생도밍그를 (종신) 총독으

로 통치하던 시기이다. 투쟁은 과거의 대농장 체제를 복구하고 해방된 흑인 노예를 강제로 일하게 하는 강압 정책을 취한다. 마지막 4막 ‘영웅들’은 프랑스 원정대의 생도밍그 도착, 전쟁과 휴전, 투쟁의 정치적 은퇴, 그가 배신당해서 프랑스 원정대의 포로가 된 사건, 주 요새 감옥에서의 비극적 죽음 등을 그리고 있다. 연극은 투쟁의 계몽주의적·합리주의적 현실 인식에 마카리아 같은 탈주 노예의 반계몽주의적·자유지상주의적 충동과 갈등하는 양상을 지속해서 보여준다. 이러한 갈등은 투쟁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

## V. 탈식민주의 서사와 문제 공간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결정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우리는 당신의 투쟁 흔적을 지구상에서 지울 것이요.”<sup>33)</sup> 주 요새의 부대장, 랑글래스가 죽어가는 투쟁에게 한 말은 글리상이 아이티 혁명의 희곡을 써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탈식민주의 역사가, 미셸롤프-트루요(Michel Rolph Trouillot)가 『과거 침묵시키기』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서구 중심적 역사 담론은 아이티 혁명의 역사를 침묵시키고 망각하게 만들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왔다.<sup>34)</sup> 랑글래스는 생도밍그에서 프랑스 원정대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자 투쟁을 다시 한번 저주하며 이 점을 강조한다. “그들은 쓸 것이요. 승리한 생도밍그 원정대라고. 그들은 그렇게 서적을 출판하고 백과사전에 쓸 것이요. 그렇소. 우리 후손들은 3대째가 넘어서기까지 이 일을 방심하지 않고 지켜나갈 것이요. 그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소. 그들은 당신을 주 요새보다 더 끔찍한 요새에, 쥐라 산보다 더 가파른 산 위에, 공식적 침묵 속에 가둘 것이요. 저주하고, 구걸하고, 애걸하시요. 수 세기가 당신을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요. 그래서 당신은 천 번 이상 죽을 것이요. 우리는 이 게임의 달인이요. 모두 당신을 잇을 것이요.”<sup>35)</sup>

서구 중심적 역사 담론이 생산한 역사의 침묵은 단순히 과거를 지우고 가

33)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p. 160, 118.

34) Michel-Rolph Trouillot, *Silencing the Past: Power and the Production of History* (Boston: Beacon Press, 1995).

35)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p. 161-162; *Monsieur Toussaint, a Play*, p. 119.

리는 것만이 아니다. 노예 반란의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검열하고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반란의 소문은 대서양 루트를 따라 광범위하게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침묵시키기’의 중요한 전략은 하찮고 의미 없어 기억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투쟁? 그저 무식하고, 문맹이고, 눈에 띄지 않는 도적단 두목일 뿐이다. 주인 흉내를 냈어.” “백인 몇 명을 죽였던 야만인이었고 식인종이었지. 우리가 그를 이성으로 인도했어.” “우리가 가서 그를 체포했고 죄수가 되었지. 여기서 죽었어.” 나폴레옹에게 패배를 안겨준 군사 전략가인 투쟁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려는 랑글래스의 말처럼, 식민주의는 아이티 혁명의 역사적 가치가 상실되어 망각하게 되는 방식으로 서구 중심적 연대기를 구축해왔다. 그래서 피셔(Sibylle Fischer)는 서구 중심적 역사 담론이 아이티 혁명의 침묵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한다. 아이티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인정(acknowledge)’했지만, ‘부인(disavowal)’하기 위해서 서구 중심적 역사 담론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sup>36)</sup>

글리상은 서구 중심적 역사 담론을 ‘대문자 역사(History)’로 지칭했다.<sup>37)</sup> 대문자 역사는 서구의 진보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지역의 경험을 배제하는 선형적이고 연대기적인 과거사 서술이다. 대문자 역사는 아이티 혁명을 자기 역사에 포함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을 다룰 때 서양의 사건과 영향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식민지 민중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이 자국 발전에 중요한지를 결정하는데 발언권을 잃는다. 글리상에 따르면, 카리브의 역사는 유럽인의 식민화, 원주민의 말살, 아프리카인의 강제 이주와 노예화, 인도계·중국계 채무 노동자의 이주와 정착 등 파열과 단절로 점철된 불연속의 역사이다. 그러나 서구에서 만들어진 기준과 분류 체계를 일방적으로 강요받으며 선형적인 연대기로 구성된다. 대문자 역사의 서구 중심적 연대기만을 과거의 유일한 원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카리브 민중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자신의 과거로부터 분리된다. 자기 역사에 대한 집단적 기억 상실, 역사의 망각이 일어난다. 카리브의 역사는 상실과 괴리만이 존재하는 ‘비역사(non-history)’가 된다. 따라서

36) Sibylle Fischer, *Modernity Disavowed: Haiti and the Cultures of Slavery in the Age of Revolu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4).

37) Edouard Glissant, J. Michael Dash tran., *Caribbean Discourse: Selected Essays(1981)*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2), pp. 64-65.



글리상은 《무슈 투쟁》의 1961년 서문에서 “타자에 의해 역사가 어둠과 절망으로 축소된 사람들에게는...과거의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sup>38)</sup> 잃어버린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식민지인에게 서구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재의 목소리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망각의 거부는 동전의 양면처럼 침묵이 강요될 때부터 있었다. 아메리카의 흑인 지식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침묵에 저항했다. 특히 1930년대 이탈리아 파시스트의 아비시니아(오늘날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침공에 대항하는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국제적 연대가 만들어지고 범아프리카주의가 활성화되면서 아이티 혁명의 기억은 역사·소설·연극·회화 등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었다. 이들 재현은 반식민주주의의 승리를 필연으로 이야기하는 혁명적 로망스의 서사 형태를 띠었다. 미성숙하고 낙후된 원주민을 계몽하려면 서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제국주의 담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혁명적 로망스는 대문자 역사의 서구 중심적 담론이 부정했던 아프리카 흑인의 역사적 주체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제임스가 1936년 쓰고 런던에서 공연되었던 《투쟁 루베르튀르》는 억압과 저항, 고난과 갈등, 최종 승리의 점층 구조를 가졌다.<sup>39)</sup> 노예제도의 억압과 흑인 노예의 투쟁(1막)으로부터 시작해서, 해방 전략을 둘러싼 흑인 지도자들의 갈등과 동요(2막)를 거쳐, 연대와 통합을 통한 최종 승리와 아이티의 독립(3막)으로 막을 내린다. 이 같은 서사에서 투쟁이나 데살린 같은 혁명 지도자가 보여주는 영웅적 면모는 흑인 노예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근대적 주체임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탈식민화의 위기는 이 같은 관점과 서사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요구했다.

글리상은 자신의 연극을 새로운 방식에서 구성했다. 혁명적 로망스는 흑인 남성 영웅의 권위 있는 목소리 하나로 국민의 역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서구 중심적 대문자 역사를 뒤집은 것에 불과했다. 인식론적 차원에서 다양성을 배제하는 같은 기반에 있는 것이다. 글리상은 ‘소문자 역사’라는 대안적 관점을 제안한다. 소문자 역사는 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

38)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8; *Monsieur Toussaint, a Play*, p. 16.

39) 하영준, 「아이티 혁명의 트랜스내셔널한 기억과 흑인 급진 정치」, 188쪽.

점으로 과거를 재구성하면서 각각의 관점에 권위를 부여하여 다수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게 한다.<sup>40)</sup> 글리상의 연극에서 투생은 여전히 중심인물이지만 다양한 인물들이 혁명의 사건들에 대한 집단적 재검증에 참여한다. 특정 역사적 사건을 다룰 때 투생은 자신의 관점과 선택을 끊임없이 변호해야만 한다. 그가 말하는 동안, 다른 등장인물의 목소리는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관점을 제시한다. “내가 ‘투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마카이어가 ‘배신자’라고 철자를 써. 내가 ‘규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이즈는 그 쪽지를 한 번 보지도 않고 ‘독재’라고 외쳐. 내가 ‘번영’이라고 써. 그러면 데살린은 거꾸로 마음속으로 ‘약함’이라고 생각해. 아니,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마뉴엘.”<sup>41)</sup> 이 같은 죽은 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서구 중심주의와 엘리트 민족주의의 대문자 역사서술에서 숨겨지고 소외되었던 과거를 되살린다. 그리고 이들 목소리가 들려주는 “과거의 예언적 비전”은 현재의 부정의를 폭로하고 다른 미래 가능성을 상상하게 한다.

연극은 아이티 혁명의 후반부, 투생이 프랑스로 끌려와 ‘주 요새’ 감옥에 갇힌 때부터 시작한다. 감옥은 아이티 혁명의 지도자, 투생의 패배를 상징한다. 연극은 영광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원인을 묻는다. 물론, 투생의 패배가 혁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글리상은 무대 장치로서 감옥과 생도밍그 공간의 동시성을 강조한다. 투생이 회상하는 혁명의 역사적 사건은 생도밍그로 변모한 감옥에서 진행된다. “그가 심지어 승리한 과거를 회상하는 동안에도 이 궁극의 감옥에서 결코 탈출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프랑스 감옥의 세계와 카리브 섬의 대지 사이에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는 없다.”<sup>42)</sup> 카리브 섬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감옥은 투생 개인뿐만 아니라 생도밍그 국민이 겪을 미래의 운명을 암시한다. 자유의 공간(아이티의 혁명)은 언제나 억압(프랑스의 감옥)으로부터 몇 걸음 떨어져 있지 않다. 식민지 노예제에 맞서 싸우다 죽은 자들의 감옥 방문은 투생 개인의 정치적 행적과 더불어 생도밍그 민중의 삶을 규정했던 식민지 지배 체제에 대해 성찰을 요구한다.

40) Schultz, “Haitian H/(h)istories,” p. 119.

41) Glissant, *Monsieur Toussaint, a Play*, p. 116. 영어판에는 없다.

42)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8; *Monsieur Toussaint, a Play*, p. 16.

연극은 흑인 노예의 인간성을 억압하고 주체성을 부정하는 권력으로 그리  
는 혁명적 로망스의 서사처럼 식민 지배 체제를 묘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투생과 같은 흑인 노예를 인간 주체로 만드는 생산적 권력으로 표현된다.  
식민지 근대성은 흑인 노예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저항을 조직하는데 필  
요한 관념적·제도적 조건을 제공했다. 투생은 식민 지배가 만든 범주와  
제도 안에서 자신이 배운 논리에 따라 혁명과 국가 건설을 전망한다. 그  
는 프랑스 혁명이 약속한 자유와 평등을 생도밍에 실현하려 했고 계몽  
이 제공하는 보편적 지식을 신뢰했다. 부두교의 신을 거부하고 서구의 과  
학과 지식을 따르며 노예 반란을 승리로 이끌었다. “우리는 조직적으로  
싸운다. 레그바(Legba)도 오군(Ogoun)도 없다. 이제 과학과 지식만이 있  
다. 우리가 행진할 때, 먼지조차도 규율이 있을 것이다. 만약 무질서와 광  
기로 승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로 남아 있을 것이다.”<sup>43)</sup>

식민지 근대성이 투생의 승리뿐만 아니라 패배도 규정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해방의 정치적 전망과 수단을 제한했다. “그가 성취했거나 성취  
하지 못한 것과 그리고 그가 기대하거나 더는 기대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  
는 데 필수적이었다.” 투생은 프랑스 공화국에 충성하며 질서와 번영을  
추구한다. 규율과 노동이 없다면 생도밍그는 자유를 다시 잃고 약탈과 살  
육의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었다. 전쟁터의 잿더미에서 벗어나 과거의 경  
제적 번영을 회복하고 획득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협력하고  
사탕수수 대농장 체제를 복구해야 했다. 해방된 흑인은 자유로운 노동자  
로서 다시 일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것은 노동 강제의 권리를 백인 농  
장주에게 다시 준다는 것을 의미했다, 연극에서 마카이아는 투생이 ‘새로  
운 노예제’를 창출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투생은 공화주의에 기초한 자  
신의 체제가 노예제만큼 억압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  
생의 백인 비서였지만 투생을 몰락시킬 음모를 꾸민 그랭빌은 백인 농  
장주들에게 충고한다. “투생이 자기 국민을 잊어버리고 계획과 전정  
(pruning)에 대한 열정에 다시 사로잡힐 때, 국민은 그를 버릴 것이고 그  
는 당신들 손에 들어갈 것이오. 당신들은 그를 패배시킬 수 없소. 오직  
투생 브레다만이 투생 루베르튀르를 이길 수 있소.”<sup>44)</sup>

43)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33; *Monsieur Toussaint, a Play*, p. 35.

44)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53; *Monsieur Toussaint, a Play*, p. 50. 투생 브레다(Toussaint Abréda)는 투생이 노예 일 때 이름으로 브레다는 그가 속한 농장 주인의 성을 따른 것이다. 반면

식민지 근대성이 투생의 정치적 전망과 수단을 구속했지만 식민 지배 체제는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은 아니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자체 내에 모순이 존재했다. 프랑스 공화주의는 모두의 자유를 선언하면서도 식민지 흑인 노예에게는 이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을 보였다. 이 같은 모순을 접할 때, 식민지 주체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생겼다. 예측하지 못한 방식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 열렸다.<sup>45)</sup> 투생의 조카 모이즈처럼 프랑스와 완전히 단절하고 독립을 선포하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따라서 투생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이다. 프랑스 공화국에 대한 충성심과 생도밍그 미래에 대한 우려는 그가 다른 선택을 상상할 수 없게 했다. 잠든 간수의 열쇠를 훔쳐 탈출하라는 마카이아의 권유를 투생이 거부하는 장면은 이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투생의 선택이 비극적인 것은 식민지 지배 체제가 창출한 근대성의 패러다임 밖에서 생도밍그의 미래 발전을 그가 생각할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연극에서 마카이아는 그랭빌처럼 혁명가 '투생 루베르튀르'의 정치적 한계를 농장 노예 시기 '투생 브랜다'의 사회적 조건에서 찾았다. “농장의 마부, 그를 보라. 그는 배란다 그늘에서 즐기고 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을 동경했다.”<sup>46)</sup> 투생은 마부로서 브랜다 농장의 살림살이를 관리하고 다른 노예를 감독하는 가내 노예였고, 노예 반란 직전에는 자유를 획득하고 작은 자기 농장을 경영하면서 한두 명의 노예를 대여하기까지 했다. 투생과 같은 가내 노예나 자유 흑인은 일반 노예와는 다른 더 나은 생활을 하면서 백인 농장주와 상대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주인의 의복을 얻어 입으며 유럽 문화에 대한 동경을 내면화했다. 그러나 이들은 노예 반란이 일어나자 재빨리 반란 노예의 지도자·군인으로 변신했고 백인 농장주의 재산을 약탈하면서 새로운 농장주 계급으로 성장했다. 아이티 혁명사 연구자, 뒤푸이(Alex Dupuy)는 제임스의 역사서가 이 같은 아이티 혁명의 계급적 문제를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sup>47)</sup> 프랑스 및 백인 농장주와의

---

루베르튀르는 그가 혁명에 참여하면서 개명한 성이다.

45) Figueron, *Prophetic Visions of the Past*, pp. 192–193.

46)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23; *Monsieur Toussaint, a Play*, p. 29.

47) Alex Dupuy, "Toussaint–Louverture and Haitian Revolution: A Reassessment of C. L. R. James's Interpretation", Selwyn Reginald Cudjoe, ed., *C. L. R. James: His Intellectual Legacies* (Hampshire:

협력 문제로 일어난 투쟁과 데살린의 대립은 흑백 인종 갈등으로만 단순히 볼 수 없었다. 데살린의 독립 투쟁은 혁명 과정에서 새롭게 성장한 흑인 농장주 계급의 정치적 헤게모니 투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농장 체제를 유지하고 흑인 대중에게 노동을 강제하려는 계급적 욕망에서 투쟁과 데살린은 같았다. 글리상의 연극은 이 같은 인종 갈등과 중첩된 계급 갈등의 차원을 투쟁과 대립하는 모이즈와 마카이아의 목소리로 들려준다.

글리상은 연극에서 투쟁의 영웅적 면모와 그가 아이티 혁명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를 심문 대상으로 삼는다. ‘무슈 투쟁’이라는 연극의 제목 자체가 그를 영웅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다루고 있음을 암시한다. 세제르와 제임스의 경우, 탈식민주의적 전환 이후에도 투쟁의 영웅적 면모와 중심적 위치는 여전히 유지되었다. 반면, 글리상의 연극에서는 다양한 인물이 투쟁의 대척점에서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모이즈와 마카이아가 특히 중요하다. 모이즈는 투쟁이 추진했던 대농장의 강제 노동 체제에 반대하고 토지 분배 및 독립을 호소하다가 반란 혐의로 처형당했다. 모이즈의 처형은 프랑스 문명과 식민지 독립(자유) 사이의 선택에서 투쟁이 보였던 정치적 동요와 상상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해방된 노예들이 투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모이즈의 처형 장면은 제임스가 1936년 쓴 연극, 《투쟁 루베르튀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글리상의 1961년 판본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제임스가 1967년 다시 쓴 희곡, 《블랙 자코뱅》에서 이 장면이 등장한 것은 글리상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제임스의 출판되지 않는 1967년 공연 대본은 동시대 제3세계의 가상 상황을 다룬 연극의 에필로그에서 모이즈를 투쟁의 정치적 대안으로 제시했다.<sup>48)</sup>

탈주 노예 공동체의 지도자, 마카이아는 제임스와 세제르의 연극에서는 볼 수 없는 예외적 인물이다. 글리상은 마카이아를 투쟁과 대등한 위치에 두고 그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연극을 구성한다. 아이티 혁명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카리브 섬들에서는 농장에서 도망친 노예들이 세운 영구적인 공동체들이 존재했다. 도망친 노예는 식민 당국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4), pp. 106– 117.

48) C. L. R. James, *The Black Jacobins* [manuscript] no 228, box 9. pp. 44–46.

깊은 숲이나 고산 지대에서 자율적인 공동체를 꾸리고 식민지 당국과 전쟁까지 벌이기도 했다. 마카이아나 상수시 같은 탈주 노예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투생·데살린·크리스토프 같은 아이티 혁명의 지도자들과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아이티의 독립이 성취되면서 결국 군사적으로 진압당했다.<sup>49)</sup> 마카이아는 투생의 계몽주의적·합리주의적 현실 인식에 반감을 품었던 해방된 흑인 노예를 대변했다.

연극에서 마카이아의 시각은 투생이 보지 못한 식민지 근대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너머의 대안적 가능성을 암시한다. 마카이아는 탈주 노예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옹호했다. “백인들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알기 전에, 우리(탈주 노예들)은 이미 숲을 지배하고 있었소. 그들의 개가 1마일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도, 평화로운 군중 속에 있는 우리 냄새를 맡았소. 탈주 노예들은 자유의 냄새를 가졌으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공화국을 건설하고 있었소. 나, 도코스(Dokos) 족장 마카이아는 투생이 우리를 위해 싸웠을 때 투생을 위해서 싸웠소.”<sup>50)</sup> 마카이아는 대중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투생의 계몽주의적 엘리트주의를 강하게 비판한다. “자유는 가르쳐질 수 없소. 그리고 자유를 위한 시간표는 있을 수 없소. 노예무역이 시작된 이래 숲에서는 자유가 커 왔소. 당신이 원한다면 거두러 오시오.” 그는 성장과 변형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투생의 논리를 거부하고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자유에 대한 열망은 본능이기 때문에, 자유는 포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세제르나 제임스의 연극은 투생과 같은 아이티 혁명 지도자의 전망이 옳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견해를 가졌다. 탈식민주의적 전환 이후 대중이 혁명에서 수행한 결정적 역할을 다양한 방식에서 강조했지만, 투생의 전망이 가지는 타당성은 여전히 옹호되었다. 이것은 마르티니크의 국회의원으로서 프랑스와의 통합을 지지했던 1950년대 세제르의 정치적 위치나, 동시대 제3세계의 사회주의·민족주의 지도자를 정치적 지지했던

---

49) Carolyn E. Fick, *The Making of Haiti: The Saint Domingue Revolution from Below* (Knoxville: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90), pp. 231–233.

50)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42; *Monsieur Toussaint, a Play*, p. 42.

제임스의 선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은 세제르가 네그리튀드 운동의 선구자였고 제임스가 레닌주의 전위정당론을 거부하고 대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지했던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였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투생에게 느꼈을 배신감을 그들의 정치적 동료나 지지자들이 느꼈다.<sup>51)</sup> 그러나 세제르나 제임스의 선택은 투생처럼 계몽주의적·합리주의적 현실주의에 입각한 측면이 있었다. 그들도 투생처럼 식민지 계몽의 자식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투생의 선택을 비판하는데 자유롭지 못했다. 반면, 글리상의 연극은 마카이아의 반계몽주의적·자유지상주의적 열정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제임스의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아이티 혁명의 연극적 재현에서 제임스보다 더 잘 구현했다고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대중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적극적 옹호는 세제르나 제임스의 작품과 구분되는 글리상 연극의 중요한 특징이다.

연극이 암시하는 것처럼 아이티 혁명에서 탈주 노예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점은 독립적 연구가 필요한 매우 논쟁적인 영역이다.<sup>52)</sup> 그러나 연극이 탈주 노예 공동체를 식민 지배 체제 밖에 있는 순수한 저항의 공동체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sup>53)</sup> 글리상은 자신의 다른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탈주 노예는 카리브의 진정으로 유일한 대중 영웅이자, 논쟁의 여지 없는 반체제의 사례, 총체적 거부의 사례이다.”<sup>54)</sup> 이 같은 글리상의 시각에는 권력과 주체의 관계를 이항 대립적으로 설정하는 반식민주의 운동의 인식 틀이 아직 남아 있었다. 노예제와 식민

51) 제임스의 경우, 이 같은 배신감을 토로했던 인물은 그의 셋째 부인 셀마 제임스(Selma James)였다. 그녀는 제임스가 혁명적 사회주의를 포기했다고 인식하고 크게 실망했다.

52) 아이티 혁명에서 탈주 노예 공동체와 부두교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는 견해는 David Patrick Geggus, *Haitian Revolutionary Studies*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2), pp. 69-80; 이에 대한 반론은 Clinton A Hutton, *The Logic &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Haitian Revolution and The Cosmological Roots of Haitian Freedom* (Jamaica Kingston: Arawak Publications, 2005), pp. 92-103; 최근 연구는 Crystal Nicole Eddins, "Runaways, Repertoires, and Repression: Marronnage and the Haitian Revolution, 1766-1791", *Journal of Haitian Studies*, 25-1(2019), pp. 4-38. 을 참조.

53) 진종화, 「에두아르 글리상의 역사 의식」, 207-209쪽.

54) Édouard Glissant, *Le Discours Antillais* (Paris: Éditions du Seuil, 1981), p. 104.

주의를 흑인의 억압적·부정적 권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저항의 주체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서구적) 근대성의 밖에 있다고 생각되는 아프리카 전통문화에 의존했던 세제르처럼, 글리상은 카리브 탈주 노예 공동체를 저항의 대안적 공간으로 상상했다. 그러나 투쟁 같은 식민지 엘리트 지식인처럼 탈주 노예 공동체도 식민 지배 체제의 안에 있었다.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자메이카의 탈주 노예 공동체들은 식민 당국과 협정을 맺고 자신의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 노예를 철폐하여 농장으로 되돌려보내거나 노예 반란을 진압하는데 협조하기도 했다.<sup>55)</sup> 그리고 이들 공동체가 보존했다고 가정되는 아프리카 전통도 유럽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흑인 노예들이 끌려 온 아프리카의 서부 지역은 대서양 노예무역을 중심으로 유럽과 교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과 문화적으로 오래전부터 상호 영향을 주고 있었다.<sup>56)</sup>

이 같은 글리상의 한계는 사상과 문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농장 노예제의 근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 부재했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임스는 저항 주체의 등장을 세제르의 아프리카 전통문화나 글리상의 탈주 노예 공동체처럼 (서구적) 근대성 밖에서 찾지 않았다. 그는 대서양 노예제를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일부로 인식하고 카리브 대농장의 노동 방식을 공장제의 맹아적 형태로 파악했다. 세계 시장을 위해서 사탕수수를 경작하고 설탕을 생산했던 카리브의 대농장은 체계적이고 기계화된 농업과 공업의 결합 형태였다. 흑인 노예는 수백 수천 명 단위로 함께 노동하면 대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자본주의 체제가 노동자를 혁명의 주체로 만드는 것처럼 대농장 노예제가 흑인 노예를 집단으로 저항할 수 있는 근대적 주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임스는 대농장 노예제의 내부에서 주체와 저항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글리상도 탈주 노예 공동체를 카리브의 역사적 대안으로 생각하던 입장에서 점차 거리를 두게 된다.<sup>57)</sup> 탈주 노예의 반란이 그들이 처한 고

---

55) David Patrick Geggus, *Haitian Revolutionary Studies*, p. 62; Kenneth Morgan, *Slavery and the British Empire: From Africa to Ame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134-135.

56) Laurent Dubois, "The French Revolution and Its Global Others: or, a French Atlantic Revolution", Draft, March 20, 2010.

57) Celia Britton, *Edouard Glissant and Postcolonial Theory : Strategies of Language and Resistance*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립으로 집단적 힘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후기 글리상은 들뢰즈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관계 이론으로 근대성의 밖이 아니라 안에서 저항을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 카리브의 크레올화(creolization)에서 예측 불가능한 저항의 가능성을 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후기 글리상의 인식 변화는 모이즈의 투쟁이나 죽은 투생이 탈주 노예의 환영들과 연대하는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암시적으로 표현되는데, 이 점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살펴볼 것이다.

글리상은 반식민주의 운동의 혁명적 로망스와 달리 자신의 연극을 투생의 감옥에서 시작하는 비극적 서사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지배 체제가 흑인 노예와 식민지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식민지 근대성이 제공한 범주와 제도 안에서 투생은 탈식민화의 전망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 혁명적 로망스가 꿈꾸었던 식민지 지배 체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인간형과 사회 체제의 창출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았다. 투생은 동화(통합)와 분리(독립)의 양극단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동요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해방 운동의 타락과 몰락이라는 비극을 불러왔다. 글리상의 연극은 아프리카와 카리브 식민지들이 독립 이후 겪게 된 신식민적-탈식민적 상황에 대한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질문(과 대답)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 문제 공간의 탈식민주의적 전환이 일어났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연극은 서구 중심적 역사서술이 전 근대적이고 복고적이라고 저평가했던 마카리아와 탈주 노예 공동체를 투생과 동등한 위치에 두면서 카리브 저항 문화의 전통을 풍부하게 하고 다양화했다. 연극이 보여주듯 탈주 노예의 정치적 상상력이 식민지 근대성에 대한 '총체적 거부'의 사례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글리상의 탈식민주의적 인식 전환이 스콧의 주장처럼 정치적 비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잘 보여준다. 이 점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카리브 정체성과 흑인다움에 대한 글리상의 탈식민주의적 전망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Press, 1999), p. 60.

## VI. 카리브 정체성과 흑인다움의 탈식민화

연극은 글리상에게 카리브 사회가 현재의 위기를 숙고하고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중요한 문화적 수단이었다.<sup>58)</sup> 그는 아이티 혁명의 연극을 통해서 개별 섬 단위의 고립주의와 분리주의에서 벗어나 카리브 공동의 대안적 정체성을 보여주려 했다. 프랑스 정부가 아이티와 같이 독립한 카리브 국가들의 정치적 무질서와 경제적 낙후성을 강조하면서 프랑스 해외도 마르티니크와 과달루페의 문화적 동화를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필요했다.<sup>59)</sup> 글리상이 마카이아 같은 탈주 노예의 목소리를 강조했던 것도 이 같은 목적이었다. ‘탈주(marronnage)’는 카리브의 거의 모든 지역에 일어난 노예의 저항 형태였고 공통된 경험이었다. 죽은 이의 환영 가운데 한 명인 마르티니크 출신 장군 텔그레스의 등장도 글리상이 추구했던 카리브 공동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1802년 투쟁이 체포될 무렵, 텔그레스는 과들루프에서 나폴레옹 원정대에 패배하게 되자, 항복하지 않고 추종자들과 함께 폭약을 터뜨려 죽음을 선택했다.<sup>60)</sup> 과들루프에서 폭사한 마르티니크 출신 플라토, 텔그레스는 노예제에 맞선 투쟁이 생도밍 그 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카리브 공동의 역사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연극이 보여주는 텔그레스와 투쟁의 상상적 연대는 1960년대 글리상이 추진했지만 실패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현되지 못한 카리브 연방을 떠올리게 한다.<sup>61)</sup>

연극은 카리브 정체성과 관련하여 유럽과 아프리카 문화 사이에 긴장을 보여준다. 이 같은 긴장은 투쟁과 그리고 감옥을 찾아온 마캉달이나 마몽 디오 같은 죽은 이들의 환영 사이에 발생한다. 후자는 아프리카 전통문화를 반영하는 부두교 신앙과 관련이 있다. 마캉달은 약초에 대한 아프리카 전통 지식으로 여러 명을 독살하여 백인 농장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탈주 노예였고, 마몽 디오는 부아 카이망에서 반란 노예의 종교의식을 주관했던 가상의 부두교 주술사이다. 그러나 투쟁은 계몽사상을 신봉하며 과학과 보편 지식을 따른다. 투쟁이 부두교 신을 거부하고 과학과 지식을

58) Glissant, *Caribbean Discourse*, pp. 196-200.

59) Richard Price, Sally Price, "Shadowboxing in the Mangrove", pp. 136-138.

60)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54; *Monsieur Toussaint, a Play*, p. 51.

61) Townsend, "The Spectral Stage", p. 515.

강조하자 병사가 크레올어로 한 대답은 투생과 그 추종자들의 세계관을 뚜렷하게 대비한다. “죽은 자는 기니로 돌아가 형제들과 합류할 것입니다.”<sup>62)</sup> 유럽문화에 깊게 영향을 받은 투생의 세계관은 마몽 디오나 마카리아가 상징하는 민중 문화와는 크게 유리되어 있다. 따라서 마캉달이나 마몽 디오는 투생이 지도자로서 노예 반란을 이끌 것을 예견하고 그를 찬양하면서 부두교 신 오구가 보호하기를 기도하지만, 그의 유럽 지향적 신념에는 계속해서 의심과 경고를 보낸다.

글리상은 연극에서 세제르나 제임스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이 아이티 혁명에 미친 영향을 강조한다.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이 반란 노예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블랙 자코뱅’이었던, 투생을 고려하면 이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흑인 노예들은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노예제와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 적합하게 변형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카리아는 투생에게 자유를 가르쳐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계몽사상의 엘리트주의를 거부했다. 모이즈도 투생의 노동 강제 체제를 비판하면서 프랑스 공화주의의 추상적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당신이 ‘국민’이라고 말하면 저는 ‘사회적 약자’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공화주의의 고귀한 정신을 가진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탕수수를 뽑고 자르고 묶는 사람들만 봅니다...당신이 ‘국민’이라고 말씀하면 저는 ‘가련한 사람들’이라고 대답합니다.”<sup>63)</sup> 프랑스 국민이 되었다는 상징적 특권의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허용을 통해서 프랑스 공화주의는 식민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불평등을 감추고 있었다.<sup>64)</sup> 해방된 흑인 노예는 프랑스 국민이 되었지만, 대농장 체제에서 여전히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다. 모이즈는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지속되는 식민지 체제의 억압과 착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와 평등 개념의 새로운 확장을 요구했다.

모이즈는 프랑스 혁명으로 상징되는 근대성의 약속(자유, 평등, 우애)을 거부하거나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흑인 노예와 식민지 종속민은 노동력의 착취와 상징적 소외 상태로 이미 근대적 발전의 일부였다. 근대성은

62)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33. 영어판에는 빠졌다.

63)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103; *Monsieur Toussaint, a Play*, p. 82.

64) Figueron, *Prophetic Visions of the Past*, pp. 179–180.

대서양 노예제와 식민지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서구 중심적 역사 담론은 이들의 배제와 망각을 통해서 근대성을 ‘서구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서구는 서쪽에 있지 않다. 서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기획이다.”<sup>65)</sup> 근대성을 서구의 내재적 발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성하고, 노예제와 식민지를 ‘근대적 서구’의 외부에 존재하는 전근대적인 유물로서 근대화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모이즈는 근대성의 원칙 중 어떤 가치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근대 프로젝트가 만든 개념과 세상을 탈식민화하려 한다. 근대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논리적·역사적으로) 배제되고 주변화된 ‘구성적 외부(constitutive outside)’, 즉 흑인 노예와 식민지 종속민의 역사를 통해서 근대성 개념을 해체/재구성하려는 것이다.<sup>66)</sup> 연극에서 마카리아의 투쟁이 서구적 근대성 밖에 발전해온 탈주 노예 공동체의 대안적 근대성을 암시했다면, 모이즈의 투쟁은 식민지와의 기원적 관계 속에서 근대성 자체가 내적으로 다양하고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순적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 같은 근대성의 해체와 재구성을 후기 글리상은 ‘관계의 시학’과 ‘전체 세계’ 개념을 통해서 철학적·규범적으로 전개했다.

근대성과 카리브 사회에 대한 글리상의 시각은 같은 마르티니크 출신이자 학문적 스승인 세제르와 큰 차이가 있었지만, 반대로 영국령 카리브 출신이었던 제임스와는 매우 닮아있다. 카리브 연방을 통한 식민지 독립이라는 정치적 입장에서든 둘은 유사했다. 그러나 글리상과 세제르의 사상적 차이에 관해서는 국내외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제임스와의 관계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세제르의 네그리튀드 개념에서 노예제와 식민주의로 상징되는 근대성은 카리브 사회와 흑인 정체성의 자기 소외와 부정을 불러온 억압적·부정적 권력이었다.<sup>67)</sup> 따라서 그는 서구 근대성의 비판과 아프리카의 재발견을

65) Glissant, *Caribbean Discourse*, p. 2.

66) “근대적, 서구적 혹은 자본주의적인 것과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요소들은 체계적으로 종속되고 주변화되어, 역사의 전개 외부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종속과 배제의 과정에서 이들 요소는 그 역사에 침투하게 되고 그것을 훼손한다... 이들 요소는 스스로가 구성되는 것을 돕고 있는 근대성을 지속해서 방향 전환하고 변이시킨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들 요소는 (근대성의) 구성적 외부가 된다.” Timothy Mitchell, "Introduction", T. Mitchell, ed., *Questions of Modernity*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0), p. xiii.

통해서 흑인의 인간다움을 복원하고 카리브 사회를 구원하려 했다. 탈식민주의적 인식 전환 이후 식민지 종속민을 주체로서 생산·구성하는 식민주의의 힘을 인식하고 네그리튀드를 비본질주의적 방식에서 사고하려 했지만, 여전히 대안은 아프리카 문화에 있었다. 카리브 사회는 근본적으로 아프리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로의 ‘귀환(retour)’을 통해서 카리브 사회를 구원한다는 세제르의 연극이 보여주는 전망에 글리상은 동의하지 않았다.<sup>68)</sup> 네그리튀드 운동은 그 기원과 발전 과정을 고찰하면 아프리카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카리브의 독특한 역사적 산물이라는 제임스의 견해와 같이했다. 세제르가 수행했던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과 아프리카의 재발견은 식민주의가 부정했던 인간다움에 대한 자기 긍정을 통해서 카리브 민중이 자기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역사 과정의 한 단계였다. 제임스는 식민 지배가 강요한 자기 소외와 부정을 카리브 민중은 창조적 에너지로 변형시켜왔다고 주장했다. 투쟁뿐만 아니라 세제르와 파농의 존재 자체가 이러한 카리브 민중의 창조적 능력을 보여준 전형적 사례였다. 글리상은 제임스의 이 같은 설명을 ‘우회(détour)’라는 자기 개념으로 표현했다. “세제르의 시와 파농의 정치적 행동은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어, 우회를 통해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장소로 되돌아오게 해 주었다.”<sup>69)</sup> 아프리카로의 우회를 통해서 카리브인이 자기 사회의 현실로 귀환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세제르와 파농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기여가 있다는 것이다.

글리상은 아프리카 문화를 열등하게 규정하는 식민주의 담론에 맞서 그 가치를 옹호했지만, 세제르의 아프리카 중심주의와는 거리를 두었다. 아프리카에 대한 기원적 추구는 카리브 사회의 발전을 볼 수 없는 위험이 있었다. 글리상은 제임스처럼 아프리카와는 구분되는 카리브 사회의 고유

67) 하영준, 「1960년대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블랙인터내셔널리즘」, 172쪽.

68) 세제르의 연극 결말에서 주인공 크리스토프 왕은 강제 노동과 독재를 통해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자신의 국가 건설 계획이 아이티 국민의 반란으로 실패하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때 그는 모국 아프리카가 자신을 아기처럼 안아주고 자기 몸을 씻어주기를 원한다. 하영준, 「1960년대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블랙인터내셔널리즘」, 164쪽.

69) 심재중, 「에두아르 글리상」, 42쪽, 재인용.

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다소 다른 견해를 가졌다. 제임스는 카리브 사회가 아프리카 문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다. “카리브 문명의 뿌리는 서구 문명의 변형”에 있었다. 흑인 노예는 강제 이주 때문에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상실한 상태였다. 그들은 백인 농장주의 지배 문화를 배우면서 변형시켜 자신만의 문화를 창출하고 아프리카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카리브인이 되었다. 카리브 정체성은 서구적 근대성 안에서 이루어진 고통스럽고 힘든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서 등장했고 진정한 탈식민화의 성취 또한 이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었다. 카리브의 아프리카인이 아프리카로 귀환했을 때 더 이상 자신이 아프리카인이 아니라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말했던 글리상도 제임스와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아프리카가 카리브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부정해서 서구 중심주의라는 비판받았던 제임스와는 달리, 세제르의 네그리튀드 운동에 영향을 깊게 받은 글리상은 아프리카 문화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했다. 그는 유럽과 아프리카 문화의 ‘크레올화(creolization)’에서 ‘앙티아니테(Antillanité)’, 즉 카리브다움(Caribbeanness)의 대안적 정체성을 찾았다.<sup>70)</sup>

연극의 마지막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투생은 죽음과 함께 마강달·마몽 디오·마카리아로 대표되는 저항의 공동체에 일원이 되고 부두교의 신과도 화해한다. 죽기 직전 투생은 크레올어로 “나는 생도맹그에서 자유가 지배하기를 원한다.”<sup>71)</sup> 라고 외친 뒤, 자신이 거부했던 부두교의 신 오구(Ogu)의 이름을 말한다. 이 동작은 마몽 디오의 대사, “투생의 마음속 오구는 강력하다.”을 환기하게 한다. 죽은 투생은 다른 죽은 자의 환영들과 함께 새로운 해방 투쟁을 위해서 바다 건너 아프리카로 향한다. 아프리카로의 ‘귀환’은 카리브 사회로의 ‘우회’를 위한 길이었다. 유럽 문화로 상징하는 투생과 아프리카 문화를 상징하는 탈주 노예들과의 연대는 다양한 문화의 뒤섞임을 통해서 예측 불가능한 저항의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다. 귀환은 고정된 장소나 시간으로의 회귀(reversion)를 의미하며 되돌아갈 자아의 안정성을 가정한다. 즉, “귀환은 단일한 기원에 대한 강박이다.” 반대로 글리상은 ‘우회’를 통한 카리브 정체성의 끊임없는 재구성을 추구

70) Édouard Glissant, "Creolisation and the Americas", *Caribbean Quarterly*, 57-1(2011), pp. 11-20; Édouard Glissant, "Creolization in the Caribbean and the Americas", *Introduction to a Poetics of Diversity*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20), pp. 3-17.

71) Glissant, *Monsieur Toussaint: Version Scénique*, p. 165; *Monsieur Toussaint, a Play*, p. 121.

한다.

연극 결말의 ‘카리브다움’은 투생의 크레올어 사용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프랑스어와 아프리카어를 통합한 크레올어는 카리브 정체성의 고유한 특징으로 강조됐다. 흑인 노예나 노동자들은 노예 소유주가 강요한 지배자의 언어를 받아들여 뒤틀고 전용해서 자신의 차이와 저항을 만들었다. 글리상은 크레올어의 역사적 등장에서 볼 수 있는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한 것을 생산하는 문화적 상호 작용의 ‘예측 불가능성’에 관심을 두었다. 연극은 투생이 탈주 노예들과 저항의 연대를 형성하고 크레올어로 생도밍그의 자유를 외치는 장면을 통해서 글리상이 카리브 문화의 핵심이자 그 미래의 지속가능성으로 생각하는 상호 연결성과 문화적 개방성을 옹호했다. 카리브다움의 특징은 고정되고 안정된 것의 거부였다. 이 같은 글리상의 크레올화 개념은 카리브의 현재 상황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었다. 유럽 문화의 본질주의와 동화주의에 저항하고 카리브의 신 식민지적 상황을 변혁하기 위한 규범적·이상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카리브의 민족주의 세력이 찬양했던 고정되고 본질화된 크레올 정체성을 거부했다. 글리상의 크레올화 전망은 세제르나 제임스와는 분명 다른 것이었지만 카리브 정체성과 흑인다움을 탈식민화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유럽의 동화주의적 지배에 도전하는 이 같은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아이티 혁명의 기억을 통해서 카리브의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했던 글리상과 같은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의 탈식민화 프로젝트가 인도계·중국계 등 다른 지역 이주민들의 역사적 경험을 무시하거나 소외하지 않고 어떻게 동등하게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후 해결해야 할 역사의 숙제로 남았다. 독립 이후 카리브 정치에서 크레올 담론은 아프리카계 이주민의 혼종성과 다양성을 찬양하고 심지어 본질화하면서 자신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려는 인도계와 중국계 이주민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써 전유 되었고 오늘날까지 카리브 사회의 인종 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72)</sup> 따라서 사상과 담론을 그 자체의 내적 논리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권력과의 구체적 관계 속에서 검토해야만 한다. 그

72) 하영준, 「트리니다드 인도계 이주 노동자의 (탈)크레올화, 1936-1966년: C. L. R. 제임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양사학연구』, 39(2016), 259~261쪽.

러나 아이티 혁명의 기억과 크레올화 담론이 식민지 독립 이후 카리브의 인종 정치와 블랙 파워 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강사, [hayoungiun@hanafos.com](mailto:hayoungiun@hanafos.com)

주제어(Key Words)

에두아르 글리상(Édouard Glissant), 무슈 투생(Monsieur Toussaint), 아이티 혁명(Haitian Revolution),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 C. L. R. 제임스(C. L. R. James)

투고일: 2022.10.15. 심사일: 2022.11.03. 게재확정일: 2022.11.08.



〈국문초록〉

**카리브의 탈식민화와 아이티 혁명의 기억:  
에두아르 글리상의 희곡, 『무슈 투생(1961)』을 중심으로**

하 영 준

이 연구는 에두아르 글리상의 연극, 《무슈 투생(1961)》을 1960년대 탈식민화라는 맥락 속에서 분석한다. 《무슈 투생》은 아이티 혁명의 지도자였던 투생 루베르튀르를 다룬 역사극이다. 글리상은 에메 세제르와 프란츠 파농 등과 같은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출신의 흑인 급진주의 지식인이다. 글리상의 연극은 아이티 혁명의 재현과 흑인 급진주의 사상 내에서 일어난 탈식민주의로의 인식 전환을 선구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식민지 마르티니크가 세제르의 적극적 추진으로 프랑스의 해외 도로 통합된 후 겪었던 사회 위기와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카리브 연방을 결성하려는 자신의 정치 활동으로 글리상 자신이 겪었던 프랑스 정부의 탄압은 그의 사상에서 심층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그는 아이티 혁명을 비극적 서사로 재현하면서 1960년대 카리브와 아프리카 사회주의·민족주의 정권의 타락과 몰락을 예견하고, 인식론적 차원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과 그 대답의 틀을 완전히 바꾼 문제 공간의 탈식민주의적 전환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글리상의 《무슈 투생》을 아이티 혁명을 다룬 세제르의 연극, 《크리스토프 왕의 비극(1963)》과 제임스의 연극, 《블랙 자코뱅(1967)》 등과 비교하면서 아이티 혁명의 재현과 흑인 급진주의 사상에서 이 작품이 가진 역사적 중요성을 드러낼 것이다.

〈Abstract〉

**Memories of the Haitian Revolution and Post-colonial  
Strategies in the Caribbean: A Study of Édouard Glissant's  
*Monsieur Toussaint: A Play*(1961)**

Ha, Young-Jun

This Study analyzes *Monsieur Toussaint, a Play*, written by Édouard Glissant in the context of post-colonial and neo-colonial situation in the 1960s. The play is a historical drama about the final days of Toussaint L'Ouverture, the leader of the Haitian Revolution. Glissant was a black radical intellectual from French Martinique, such as Aimé Césaire and Franz Fanon. Glissant's play is a pioneering work that showed the epistemological shift in black radical thought. It is to be read not only vis-à-vis the contemporary historical-political circumstances of the post-war Caribbean, but also in the light of Glissant's own personal stance in relation to them. His teacher at the Lycée Schoelcher, Césaire followed the moderate path of *départements d'outre-mer*, or overseas departmentalization for Martinique. But Glissant actively called into question the status of the department. He took a clear stand for Antillean self-determination, against assimilationist departmentalization and in favor of establishing stronger links with the rest of the Caribbean region. In the 1960, he became one of many anti-colonial intellectuals who faced reprisals from the French government. Glissant turned to the Haitian Revolution to address issues that were of immediate concern to him in a Martinican (and more widely departmentalized) context. The play stands for the Glissant-Césaire tensions with regard to Martinique's future. He understood the history of Haitian Revolution from a post-colonial perspective, reproducing it as a tragic drama according to the change in problem-space of the 1960s. This study will compare Glissant's play

with Césaire's play, *the tragedy of Kong Christophe*(1963) and C. L. R. James' play, *Black Jacobins*(1967), which deals with the Haitian Revolution, and reveal the importance of Glissant' ideas in the black radicalism.

## 참 고 문 헌

### 1. 사료

Césaire, Aimé (1961), *Toussaint Louverture: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e problème colonial* (Paris: Présence Africaine, 1981).

Césaire, Aimé, *La tragédie du roi Christophe* (Paris: Présence Africaine, 1963).

Glissant, Édouard, *Monsieur Toussaint, Theatre* (Paris, 1961).

\_\_\_\_\_, *Monsieur Toussaint : version scenique* (Paris : Editions du Seuil, 1986[1976])

\_\_\_\_\_, trans. by J. Michael Dash and Edouard Glissant, *Monsieur Toussaint, a Play*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05).

\_\_\_\_\_, *Le Discours Antillais* (Paris: Éditions du Seuil, 1981), trans. by J. Michael Dash, *Caribbean Discourse: Selected Essays*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89).

\_\_\_\_\_, trans. by Betsy Wing, *Poetics of Relatio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7).

James, C. L. R. (1938), *The Black Jacobins: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San Domingo Revolution* (New York: Random House, 1989).

James, C. L. R. (1936), *Toussaint Louverture: The Story of the Only Successful Slave Revolt in History, A Chronicle Play in 3 Acts*, [manuscript], No 275, Box 12, The C. L. R. James Collection, The West Indiana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St. Augustine, Trinidad and Tobago.

James, C. L. R. (1967), *The Black Jacobins* [manuscript] no. 228, box 9, The West Indiana and Special Collections Division,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St. Augustine Trinidad and Tobago.

### 2. 단행본

Bongie, Chris, *Friends and Enemies: The Scribal Politics of Post/Colonial*

*Literature*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08).

Britton, Ceila, *Edouard Glissant and Postcolonial Theory: Strategies of Language and Resistance*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1999).

Curtis Small, Jr., “‘Cet Homme est une Nation’: The Leader and the Collectivity in Literary Representations of the Haitian Revolution (Hugo, Lamartine, Glissant, Césaire)”,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French, New York University, 2001.

Dash, J. Michael, *Edouard Glissa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Drabinski, John E., Marisa Paraham, eds., *Theorizing Glissant: Sites and Citations* (London: Rowman & Littlefield, 2015).

Figuroa, Victor, *Prophetic Visions of the Past: Pan-Caribbean Representations of the Haitian Revolution*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15).

Glick, Jeremy Matthew, *The Black Radical Tragic: Performance, Aesthetics, and the Unfinished Haitian Revolu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6).

Hallward, Peter, *Absolutely Postcolonial: Writing between the Singular and the Specific*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1).

James, C. L. R., Anna Grimshaw, ed. and intro., *The C. L. R. James Reader* (Oxford: Wiley-Blackwell, 1992), pp. 57-111.

Kaisary, Philip,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Literary Imagination: Radical Horizons, Conservative Constraints* (Charlottesville: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14).

Schultz, Kennedy Miller, “Haitian H/(h)istories: Representations of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Plays of Glissant, Césaire and Dadi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0.

### 3. 논문

박주식, 「크레올화의 시학: 에두아르 글리상과 카리브 군도의 탈식민 문화 정

- 체성, 『비평과 이론』, 21권 3호(2016), 175~203쪽.
- 심재중, 「경이적 리얼리즘에서 ‘관계의 시학’까지 - 프랑수아르 카리브의 담론」, 『라틴아메리카연구』, 18권 1호(2005), 335~353쪽.
- 심재중, 「에두아르 글리상: 카리브 탈식민의 과제와 그 너머 - 『레자르드강』을 중심으로」, 『불어문화권연구』, 20호(2010), 39~61쪽.
- 진중화, 「에두아르 글리상의 시와 평론에 나타나는 앙티아니테를 중심으로 한 서인도해 정체성 추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2집(2010), 477~514쪽.
- 진중화, 「에두아르 글리상의 역사 의식」,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9집(2012), 195~216쪽.
- 진중화, 「에두아르 글리상의 관계 정체성」, 『한국프랑스학논집』, 95집(2016), 153~187쪽.
- Britton, Celia M., “Globalization and Political Action in the Work of Edouard Glissant”, *Small Axe*, 13-3(2009).
- Dash, J. Michael, “Hemispheric Horizons: Confinement, Mobility, and the ‘bateaux-prisons’ of the French Caribbean Imaginary”, *Contemporary French and Francophone Studies*, 15-1(2001).
- Forsdick, Charles, “‘Focal Point of the Caribbean’: Haiti in the Work of Édouard Glissant”, *Callaloo*, 36-4(2013), pp. 949-967.
- Forsdick, Charles, “Late Glissant: History, ‘World Literature,’ and the Persistence of the Political”, *Small Axe*, 14-3(2010), pp. 121-134